

러스킨의 裝飾類型分類를 사용한 19世紀 服飾裝飾의 類型學的 解析

구 다 지

배재대 의류학과

A Typological Analysis of the Decorations in the 19th Century Costumes Using the Classification for the Decoration Type of Ruskin

Mi Ji Koo

Dept. of Clothing & Textiles, Paichai Univ.

(1992. 5. 2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e new experimental approach to the methodology of the costume history study. The basic frame is structured by the concept of the type. This is developed to the decoration type of the costume, originated by the classification of the decoration type of Ruskin. Using this, the reseacher could analysis the decoration type of the costumes in the 19th century. In the result, the researcher could find that the change of the decoration type had the regular orientation of the oscillation through the periods.

It is the experimental frame for the analysis of the styles. But it will provide the more extensive analytical frame on condition that catagorizations are completed. And it will be able to imply to the 20th century's costume.

I. 序 論

복식에 관하여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끝없이 한 시대의 복식들을 분류, 평가하고 현재의 복식을 기반으로 앞으로 다가올 복식들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가 양식(style)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양식의 개념은 수세기에 걸친 다양하고 개성있는 의복들에 공유된 특징들을 찾아내어 서로 연관 시키거나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참 해오던 복식에 관한

관점은 형태변화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변화들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관점에서 의 고찰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즉 복식양식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이론들은 주로 Kroeber²⁹⁾나 Young 등³⁰⁾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한 양식이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재현한다는 관점을 갖는 주기적 변화이론이다. 이들은 복식의 흐름을 다만 나열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사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나, 복식을 이루는 외적형식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³¹⁾.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돈되어 사용

되어 왔던 양식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복식을 지칭하여 설명할때, 스타일, 실루엣, 양식, 유형 등의 개념이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술사적 양식개념과 복식과 관련시켜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양식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인 ‘유형학(typology)’의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러스킨의 장식유형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복식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양식의 하위 개념의 하나로서 ‘장식’을 선택하여 장식유형에 따라 복식을 분류하여 봄으로써 복식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樣式, 類型 및 裝飾

1. 樣式概念(Concept of Style)

예술사에서 ‘양식(style)’이란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민족의 예술작품을 서로 연관시키거나 혹은 그 예술품의 표현이나 작품행위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밝혀 줄 수 있는 보편적인 형식이나 공통적인 경향을 갖는 예술사를 서술할 수 없다.

‘양식’이란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분리된 수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관념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며 또한 자신의 내용에 따라 변화해가는 역동적인 관계 개념으로써 하나의 구조로 이해되어진다. 하나의 양식은 수많은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개별적인 작품활동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양식자체는 의식적 또는 계획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며 작가들에 의해 공유된 공통적인 의식세계의 일부분도 아니다¹⁾.

양식이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 stilus로서 필기용 철필을 가리키던 것에서 점차 발전하여 수사학이나 물체론 등에서 문장 쓰는법 또는 문체의 의미로 쓰이다가 더욱 확대되어 예술적 방법에도 적용되게 되었다²⁾.

예술상의 양식개념은 18세기 빈켈만에 의해 처음으로 예술의 영역에 받아들여졌고, 괴테의 예술론이나 셸링의 미학에서 특수한 가치론적 입장에서 문제시 되었으나, 19세기 중엽이후 젤퍼나 리글, 뵘플린 등에 의한 미술사학의 방법론적 기초와 연관되어 뚜렷한 발전을 이루었다^{2,3)}.

양식개념은 크게 유형개념과 가치개념으로 분류된다⁴⁾. 가치개념으로서의 양식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상당한 품격을 갖추었을때 적용된다. 유형개념으로서의 양식은 예술적 표현 또는 형성 방식의 유형적 분화에 관한 기술개념으로써 사용된다. 그런데 유형개념의 형성방식은 한 작품이 아닌 다른 여러 작품에 근거한다는 보편적 의미의 측면과 각각의 작품을 주목해야 한다는 개성적 의미의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복식에서 양식이란 복식의 특징적이며 구별되는 외관으로 정의되고 있다^{1,8,32)}. 즉 의형, 재료, 디테일 등 외관을 이루는 요소로서 이해되거나 또는 구조적인 선의 재단에 의해 부여된 특징적인 형이나 실루엣을 말하기도 한다.

예술사에서 정의되고 있는 유형개념으로서의 양식은 복식과 관련시켜 볼때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2,31)}.

첫째, 역사적 양식이다. 일반적으로 양식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각 예술가의 정신의 개성(ex.작가양식 또는 개인양식)이나 연령적 발전단계에 따른 분화(ex.청년양식, 노년양식)로 정의되는 것, 또 시대정신과 민족정신에 대응되는 양식(ex.고딕양식, 르네상스양식/프랑스양식, 독일양식), 기타 세대양식, 지방양식, 계급양식 등이 있다. 여기서 작가양식은 복식에서는 Channel양식이나 Dior양식등 디자이너에 따른 형태구분이 된다. 시대양식은 서양복식에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등으로 구분하며, 민족양식이란 각 문화권에 따른 민족복과 관련시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장르양식이다. 예술창작의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고 예술의 종류, 또는 장르의 차이에 근거하여 분화되는 양식으로서, 표현수단 또는 매체의 성질에 의한 것(ex.수채화양식/청동양식), 표현대상 및 제재의 성질에 의해 규정되는 것(ex.정물, 풍경화양식), 각 예술 장르에서의 고유한 형성법칙에 따른 양식적 특성에 의한 것(ex.서정시양식/부조양식)과 실용목적에 의한 양식적 특성(ex.궁정양식, 사원양식)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복식에서 표현수단은 목둘레선, 칼라, 소매등이 어떤 디자인으로 되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매체의 성질에 따른 구분은 소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표현대상 또는 주제의 성질은 유행경향의 주제 즉 유니섹스풍, 아방가르풍, 복고풍 등이 이에 속한다. 고유한 형성법칙에 의한 양식적 특성은 복식에서 시간, 장소, 경우에 의해 구분되는 이브닝복, 결혼복, 운동복 등이 이에 속한다.

세째, 기본양식이다. 이는 예술창작 자체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성향에 의거하여 양식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식의 형태에 대한 기초개념³¹⁾으로는 ‘평면적·입체적’, ‘구조적·비구조적’, ‘드레이프드·테일러드’, ‘직선적·곡선적’이 있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능주의적·표현주의적’, ‘남성적·여성적’등이 있는데, 이는 본질적인 양식개념이기보다는 그 기본적 성격을 파악하여 정리하려는 일종의 식별가능한 범주적인 대립개념으로 사용되어 진다⁸⁾.

또한 양식은 선, 면 등의 형식과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중적인 근원을 가지는데⁵⁾ 이들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조화되고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 가능하도록 해준다. 여기서, 양식의 유형개념에 관하여 그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 類型概念(Concept of Type)

유형(type)은 그리스어인 ‘typos’에 그 어원을 두고있다⁸⁾. 이것은 뵤플린⁵⁾이 양식을 형식과 내용의 이중근원의 측면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처음에는 생물적이고 형태학적인 범주로 해석하여 사용하였으나, 점차 단순한 외면적인 지각 이상의 이해작용을 전제로 하여 대상의 뜻하는 바를 내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많은 개체사이에서 일정한 복합체를 찾아내어 정신적이고 역사적인 범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⁹⁾.

유형은 ‘반복성과 개별성으로 자체의 성격을 지니며 한 그룹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반복성이란 작품자체의 본질적인 원리를 말하며 개별성이란 작품이 갖는 고유한 예술적인 경향을 의미한다¹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유형의 개념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¹¹⁾. 첫째 형태의 분류적 수단으로써 같은 형태 구조를 갖는 사물의 그룹을 묘사하는 개념이다. 둘째, 유형자체의 변화와 그 발전과정을 갖는 내적 구조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유형의 두 개념이 상호보완적일때 유형의 질적인 개념발전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분류수단으로써 유형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동시에 시스템이나 기존의 관계성의 총체인 구조로써 유형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¹⁰⁾. 이것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과 유리된 현상을 분류하여 목록화 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능이나 목적 등 특성에 따른 일정한 유형의 설정을 바탕으로 유형간

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더 나아가 내적질서나 원리의 발견으로 그 구조를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유형(type)은 역사 또는 전통 속에서 추출되나, 그대로의 복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질적으로 변화를 전제하여 성립한다¹²⁾. 즉 단순히 대상으로부터 물리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의미의 ‘복사’하는것을 배제하고, 그 대상이 갖는 ‘개념(idea)’과 ‘형상이 지니는 의미’에 관하여 총체적인 분해를 거친후에 얻어진 일반성에 접근한 후 특수성에로의 재구성을 행함으로써, 과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므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만 창조적인 조형행위를 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은 인간간의 새로운 관계, 가능성 및 사회의 경제, 기술적 수준에 결정된다고 할때¹⁰⁾, 유형의 산출과 변화는 사회구조를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 없고, 또 유형적 변화와 그 변화를 수용하는 사회내의 갈등에서 유형의 변화가 성립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혁신은 유형의 창조라기 보다는 변환에서 발생되며, 이 변환은 매우 느리며, 사회와 고도로 복잡한 연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즉 유형은 그 사회구조와 일치하는 위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상호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복식의 유형변화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격변의 요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의 변화는 점진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다.

3. 類型的 하나로서의 ‘裝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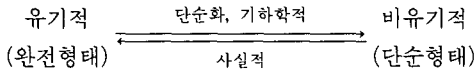
영국의 미술비평가인 존 러스킨은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철저히 내팽겨쳐진 예술의 위기상황에 최초로 주목하고, 공장의 굴뚝, 매연, 자연의 황폐, 여유없는 삶에 분개하고 근대문명을 저주하는 태도로부터 발전하여, 경쟁적 상업주의 비판, 본업제도 등의 기계적노동의 부당함의 지적, 특권계급제도의 부정, 인간평등의 주장 등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며, 이러한 사상한 현대 디자인의 선구자로 볼 수 있는 윌리엄 모리스에까지 이 어진다^{13,14)}.

이러한 러스킨의 사상 속에는 자연의 모습이 적게 내포될수록 그 물건은 품위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저급한 용도에 적합하게 된다. 그러나 위대한 기술자는 그런 경우에도 자연속에 있는 각양의 아름다운 선을 재현해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연주의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¹⁵⁾.

고전주의적 입장에서 장식적 형태의 미적 근본을 자연적 형상과의 유사성에서 찾은 러스킨^{16,17)}은 건축분야에서의 장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장식이 건축의 목적에 종속되는 장식물로서 기능할때 가장 효과적이며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분류한 장식의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상부에 추가되는 독립적인 부조물로서, 추상적 형태가 아닌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유기적 형태의 장식이다. 둘째, 건축물 하부에 추가되는 부조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보다 단순화된 형태의 '유기적 형태와 유사한 장식'이다. 셋째, 외곽선만으로 표현되어 형태가 단순화된 것으로 유기적 형태가 외곽선으로 추상화된 장식이다. 넷째, 다양한 채색의 기하학적 패턴이나 구름무늬 등을 사용한 형태로 비유기적 장식이다.

이들은 장식을 유기적인 형태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정도에 따른 차이로서 구분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비유기적인 것은 유기적 형태를 잃는 것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러스킨의 장식유형분류는 장식의 특성을 장식의 정도에 따라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가 사용한 유기적인 속성여부는 구조물의 특징과 그에 추가된 장식, 이로써 형성되는 외곽선, 구조자체에 포함된 무늬 등에 근거하여 분류된 것이다. 이것은 복식에서 그 구조가 되는 인체, 인체에 옷이 입혀졌을때 이루어지는 삼차원적인 실루엣, 그리고 이 실루엣을 이루는데 사용된 장식과 무늬로 연결시킬 수 있다.

III. 服飾에서의 裝飾類型에 관한 分類

위에서 제시한 장식유형의 분류의 특징에 근거하여 유기적인 장식의 정도에 따라 장식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것을 발전시켜 복식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적 분류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먼저 장식유형은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의 두 범주로 나누어진다. 러스킨은 유기적인 범주에 속하는 속성으로 추상적이 아닌 비교적 사실적인 것을 들고 있고, 비유기적인 속성으로 추상화된 장식과 형태의 단순화를 지적하고 있다. 또 사실적인 형태의 보다 단순화된 형태를 들어 이 두 범주의 과도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복식에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분류인자를 추출한다. 즉 그의 장식 유형분류에서 기준이 되는 요인들 즉 구조, 외곽선, 무늬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의복의 장식과 관계하여 기본적인 구조인 신체와의 관계성, 실루엣, 무늬와 비교될 수 있다. 이 기본인자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또는 비유기적인 복식의 장식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복식에서의 장식은 여러 측면에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장식의 구성적 측면에 따른 차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악세서리를 제외한 의복에서 패턴에 조절을 가하여 생기는 절개나 박음을 이용하여 생기는 구성적 차원에서 생성된 장식을 디테일(detail)이라 한다. 둘째, 악세서리를 제외한 부가물을 사용하여 구성시 의복에 박음질을 통하여 고정시켜 이루어지는 장식을 트리밍(trimming)이라 한다. 셋째, 악세서리를 이용하여 실루엣에 변화를 초래하는 방법(ornament)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유기적인 또는 비유기적인 실루엣과 관계하여 볼때 장식유형과 실루엣, 무늬, 신체와의 관계를 다음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표 1).

<표 1> 장식유형에 따른 복식의 특성비교

복식의 장식 분류인자	유기적	비유기적
실루엣 무늬 신체와의 관계	곡선적 사실적 복식우선형 ²³⁾ . 인체의 부분적 부위를 과장 또는 축소시켜 인체본래의 형태를 왜곡시키고 복식의 조형형태미를 강조.	직선적 추상적. 기하학적 인체우선형. 인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낸 형. 인체가 복식에서 해방.
장식	러플, 레이스, 페플럼, 플라운스, 드레이퍼리, 프리, 꽃장식 등.	바인딩, 커프스, 상침, 직선적인 포켓, 턱, 브레이드, 프린지, 단추.

이제 19세기에 나타난 복식의 흐름을 장식유형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표1의 분류기준을 근거로 하여 19세기에 관련된 사적 자료들을 내용분석하였고 이 결과에서 기초하여 각 양식의 장식유형을 결정하였다(표2).

<표 2> 각 양식의 장식유형의 특성비교

분류인자 특성 양식	실루엣		인체와의 관계		무늬				장식			
	곡선	직선	복식우선	인체우선	사실	같이 보임	추상 기하	없음	유기	같이 보임	비유기	없음
엠파이어 n=32개 (%)	0 (0)	32 (100)	0 (0)	32 (100)	4 (12.5)	1 (3.1)	7 (21.9)	20 (62.5)	4 (12.5)	5 (15.6)	23 (71.9)	0 (0)
왕정복고 n=36	36 (100)	0 (0)	36 (100)	0 (0)	12 (33.3)	2 (5.5)	11 (30.6)	11 (30.6)	26 (72.2)	10 (27.8)	0 (0)	0 (0)
크리놀린 n=49	49 (100)	0 (0)	49 (100)	0 (0)	8 (16.3)	1 (2.0)	14 (28.6)	26 (53.1)	15 (30.7)	20 (40.8)	3 (26.5)	1 (2.0)
버슬 n=35	35 (100)	0 (0)	35 (100)	0 (0)	2 (5.8)	0 (0)	13 (37.1)	20 (57.1)	14 (40.0)	21 (60.0)	0 (0)	0 (0)
아우어 클래스 n=21	21 (100)	0 (0)	21 (100)	0 (0)	1 (4.8)	3 (14.3)	9 (42.9)	8 (38.0)	17 (80.9)	3 (14.3)	1 (4.8)	0 (0)
S커브 n=16	16 (94.1)	1 (5.9)	3 (17.6)	14 (82.4)	0 (0)	0 (0)	6 (35.3)	11 (64.7)	5 (29.4)	6 (35.3)	6 (35.3)	0 (0)

(단, 밑줄은 내용분석시 유사한 경향끼리 묶은 것임)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그리스-로마의 복식특성이 재현되었던 엠파이어(empire)양식[그림 1]은 거의 직선적인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지만, 신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으며 봉재과정에서 고려된 드레이퍼리로써 아름다운 직선적인 선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20,21)}. 표2에

의하면 비유기적인 장식유형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비유기적 장식).

왕정복고시대의 복식[그림 2]은 과장된 소매(bertha collar와 연결되는 puff소매, balloon gigot소매, imbecile소매, engageantes)와 가느다란 허리의 강조, 또 크리놀린의 조짐이 보이는 퍼진 스커트 등 실루엣 자체가 과장



[그림 1] empire Style.



[그림 2] 왕정복고 시대.



[그림 3] Crinoline style.



[그림 4] bustle style.

되기 시작하고 있다^{20,22,23}). 그런데 이때 사용된 장식은 트리밍의 개념보다는 소매자체를 확대시켜 장식의 효과를 갖는 구성상의 장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유기적 장식).

크리놀린(crinoline)시대의 복식[그림 3]은 극단적으로 스커트폭을 넓혔으며, 데콜레뜨(décolléte)와 가느다란 허리, 넓어진 스커트로 흐르는 선을 인지할 수 있는 과장된 실루엣이며^{19,21,24}, 러플이나 플라운스등의 곡선적인 장식과 브레이드나 턱과 같은 직선적인 장식을 함께 사용하였다(과장된 유기적 장식).

버슬(bustle)시대의 복식^{22,25} [그림 4]은 신체의 특성을 강조하되, 가슴은 더 나와보이고 험은 뒤로 더 돌출하여 보이도록 한 과장된 실루엣의 전형이다. 장식은 페플럼이나 드레이퍼리 등 구성상의 장식과 리본등의 트리밍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과장된 유기적 장식).

아우어글래스(hourglass)실루엣의 복식²⁸ [그림 5]은 레그오브머튼(lef-of-mutton)소매와 퍼프소매를 사용하여 넓은 어깨를 강조하고 허리를 가늘게 하였고 하체부분은 고어드스커트를 사용하여 신체를 따라 나타나는 선을 약간 과장시켜 표현하였으며, 이를 위해 옷의 재단방법에서부터 이 목적을 고려한 여러 장식이 보인다. 이것은 왕정복고시대에서 보여진 장식유형처럼 소매자체를 이용한 장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hourglass silhouette.

(유기적 장식).

S-curved 실루엣²³ [그림 6]은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에서 상체의 과장을 배제하고 여성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대표적인 실루엣으로 아르누보(art



[그림 6] s-curved silhouette.



[그림 7] garçonne style.



[그림 8] New-Look.

유기적 장식). 실루엣과 장식유형과의 관계의 변화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하여 20세기초의 복식을 몇가지 더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1920년대의 가르손느(garçonne)스타일의 복식 [그림 7]은 아르데코(art deco)의 영향으로 보이는 직선적인 선을 즐겨 사용하고 있고, 거의 장식없이 인체를 콜셋과의복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유기적인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난 세기의 장식의 습성이 남아 있어 비교적 절제된 상태의 장식형태를 보여주고 있다^{23,27)}(비유기적장식).

1947년경 나타나는 디오르의 뉴룩(New Look)은²⁸⁾ 어깨를 강조하고,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하며, 다시 스커트를 넓게 퍼지게 한 것으로 [그림 8], 여성의 신체곡선의 특징들을 나타내되 장식적 측면은 거의 없이 구성상 형성된 조형적인 실루엣이라 볼 수 있다(유기적 장식).

nouveau)의 곡선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복식으로의 과도적 성격을 지닌 복식으로써, 사용된 무늬 등을 비교적 사실적인 형태를 디자인 다른 시대에 비하여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실루엣과 인체와의 관계에서 볼때 장식은 거의 배제하고 인체의 선을 중시하여 표현한 단순화된 비유기적인 장식유형으로 볼 수 있다(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큰 변화가 인지되는 양식의 변화들은 장식의 관점에서 볼때,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서로 관련된 점진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의복의 실루엣과 장식과의 관계성을 나타낸 도표를 보면, 시대에 따른 장식유형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엠파

이러 양식이 비유기적인 실루엣을 가지면서 직선적이면서 신체를 드러내는 반면, 이들은 점차 과장된 장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이행형태로 볼 수 있는 시기에서는 트리밍보다는 디테일을 사용한 장식방법이 두드러졌고, 과도한 장식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장식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또 19세기말에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나타난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에서는 다시 디테일을 이용한 장식이 보이고, 이것이 점차 비장식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20세기초 콜셋으로부터 인체를 해방시킨 의복을 표현한 가르손드스타일에 이르러서는 비유기적이고 직선적인 실루엣이 나타난다. 그러나 유기적인 실루엣 자체가 주는 장식적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식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점차 직선적이고 비유기적인 실루엣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때 두번의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다시 여성적인 취향으로 돌아가 복고적인 형태로써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뉴룩이 디오르에 의하여 제시된다. 이것은 장식유형의 변화가 다시 장식경향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2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실루엣, 인체와의 관계와 장식유형이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류들은 양식적 측면에서 분류에 따라 적용해본 것이나 다양한 복식에 적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한 양식속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한 양식적인 서술의 측면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적용시키는 것과 같이 한 양식을 '장식'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하위개념을 갖는 관점에서 조명하여 보는 방법을 사용하면 적용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양식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관계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V. 結 論

의복의 스타일 즉 양식의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의 복식사에 대한 염증이 단순한 양식변화 이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해석자가 어떤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무한한 분석과 양식에 관한 다양한 비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식의 흐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양식 즉 스타일의 측면에서 복식을 조명하는 것은 그 내면의 질적 특성보다는 형식의 측면에서의 분류가 주된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종래의 방법으로는 복식의 분류나 해석에 있어서 양식적 측면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의복형태의 개성적인 측면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그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범주화의 작업을 또한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양식의 대범주화에서 그 하위특질로 볼 수 있는 장식유형의 도입은 역사속의 복식을 양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복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해줄 수 있다. 다시말하면 복식에 대한 흐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양식자체에 대한 설명에서 더 나아가 그 양식에 내포된 스타일의 질적특성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본고에서는 종래의 혼용되어 오던 양식과 유형의 개념을 정리하고, 형태소로써의 복식이 아니라 한 유형으로써의 복식의 개념을 설정하여 분류에 적용해야함을 제시하였다. 먼저 복식의 실루엣과 인체와의 관계를 보다 장식의 정도를 분류해내었는데 그에 따라 19세기의 복식을 장식을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것은 역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단지 그 양식내의 또다른 하위개념으로의 범주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좀더 완전한 범주화(categorize)를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시도에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전통적인 분류양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양식이 대두되고 있고 공유된 가치체계가 점차 상실되고 있으며 주변상황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독창성을 강조하는 문화의 맥락가운데서 이러한 양식의 범주화는 다소간 난점을 안고 있으나, 형태(form)의 측면을 양식의 측면에서보다는 유형(type)에서 접근한다면 훌륭한 돌파구를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參 考 文 獻

- 1) Hauser, A., 예술사의 철학, 황지우 역, 돌베개, 216-217, (1983)
- 2) 미학사전, 논장출판사, 419, 420-423, (1988)
- 3) 장미진,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양식'문제(I), 미학 10, 132, 110-111, (1984-85)
- 4) 홍승기, 미술사에 있어서 양식개념에 대한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 (1984)
- 5) Wöfflin, H., Principles of Art History-The Problem

- of the Development of Style in later Art. translated by Hottinger, M.D. NY: Dover Pub., Inc. 13-16, (1929)
- 6) 渡邊護, 藝術樣式論, 美學, 93호, 日本美學會, (1973)
 - 7) 소연방아카데미, 미학의 기초(III), 논정출판사, (1989)
 - 8) 빈본준다, 건축의 현대사상, 녹도출판사, 172, (1982)
 - 9)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Press, 1976, (1972)
 - 10) 정태용, 현대건축에서의 유형개념 및 유형학적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32, 36-37, (1988)
 - 11) Encyclopedia America, American Cooperation, 1257, (1963)
 - 12) 김억중, 이상적 모방과 역사적 연속성, 공간8501, 117
 - 13) Morris, W., Hopes and Fears for Art. p. 4. quoted in 勝見勝. 현대 디자인이론의 사상가들. 박대순 역.
 - 14) 서양건축론연구, 연세대건축공학과 편, 집문사, 324, (1990)
 - 15) 정시화, 현대디자인연구, 미진사, (1980)
 - 16) Ruskin, J., Architecture and Painting, Addenda to lectures I & II, Library Ed., xii, (1904), 페브스너, 근대디자인선구자들, 정구용역에서 재인용.
 - 17) 白石傳三, 리스킨과 모리스의 건축론적 연구, (1958), 小林文次, 서양 건축사, 정철영 역, 세진사, 367, (1990)에서 재인용.
 - 18) Davis, M.,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17-19, 281, (1980)
 - 19) Picken, M.B., The Fashion Dictionary. NY: Funk & Wagnalls, 104, 261, (1963)
 - 20) Black, J.A., Garland, M. & Kennett, F., A History of Fashion, London: Orbis Pub. Limited, 168-169, 182, (1980)
 - 21) Köhler, K., A History of Costume, NY: Dover Pub. Inc. 390-393, 426 (1963)
 - 22) Payne, B., History of Costume: From the Ancient Egyptian to the Twentieth Century, NY: harper & Row, Pub., 493-494, 519-520, (1965)
 - 23)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 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123-124, 142, 200, (1988)
 - 24)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262, (1987)
 - 25) 임원자, 구미지, 버슬스타일을 중심으로 본 유행의 주기성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12호, 42, (1988)
 - 26) Turner, W., The Mode in Costume, NY: Charles Scribner's Sons, 319-320, (1958)
 - 27) 조규화,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 류학회지, 8(3), 28(1984)
 - 28) Ewing, E.,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New Jersey: Barnes & Nobles Books, 155, (1986)
 - 29) Kroeber, A., On the principle of order in civilization as exemplified by changes of fashion, American Anthropologist, 21, 235-263, (1919)
 - 30) Young, A., Recurring cycles of fashion: 1760-1937, 1937, in Gorden Ed.,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Unwin Ltd., 107-124, (1974)
 - 31) 최윤미, 복식사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4, 24-27, (1991)
 - 32) Mcjimsey, H.,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The Iowa State Univ., 43, (1973)
 - 33) 류기주,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37-38, (1990)